



보도시점 : 2025. 2. 28.(금) 06:00 이후(2. 28.(금) 석간) / 배포 : 2025. 2. 27.(목)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열린다

- 2월 28일 40여개 기관이 모여 공항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논의
- 공항 실시설계 반영 필요사항과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 논의하기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자체(부산·울산·경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연구기관 등과 함께 2월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한다.

- 이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 (협약명칭)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협약기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 운영되며,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 항공, 물류, 관광, 산업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관은 적극 확대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분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전체회의의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 6개 협약기관이 모든 분과에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각 분과 주관을 맡고, 연구기관이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 (공항건설 및 운영) 건설공단(주관), 건기연(지원) + C.I.Q기관, 학회, 협회 등
 (교통망 구축·연계) 국토부(주관), 교통연(지원) + 기존 접근교통망TF 등
 (항공수요 제고·창출) 건설공단(주관), 교통연(지원) + 항공사, 관광공사 등
 (물류 활성화 분야) 해수부(주관), 해양수산개발원(지원) + 부산항만공사, 경자청 등
 (배후지역 개발·연계) 지자체(주관), 국토연(지원) + 지역별 도시공사 등

< 거버넌스 논의과제 선정결과 >

- 거버넌스 운영 초기에는 공항 설계 반영 필요사항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 사고와 관련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지조성공사와 여객터미널 등 건축 설계는 각각 올해 6월과 8월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설계 반영 사항을 적극 발굴한다.

- 안전과 관련해서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은 지하에 설치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구조를 적용하고, 조류 충돌사고 예방 대책도 검토하며, 4월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대책”의 내용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공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현장 안전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이용자 관점의 공항설계, ▲교통인프라 간 연계, ▲항공사 유치 및 거점항공사 육성, ▲복합물류 연계체계, ▲개발계획 간 연계 등 분과별로 올해 우선 논의할 과제를 선정하고,

- ▲공항부지 운영계획, ▲공항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체계, ▲인-아웃 바운드 수요 창출, ▲항만-공항 연계인프라 도입, ▲고부가가치 상업 시설 유치 등 과제도 '26년부터 차례로 검토한다.

< 거버넌스 향후 운영계획 >

- 거버넌스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1~2회의 분과회의와 격월로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를 구체화한다. 부지조성공사 및 건축공사의 실시 설계가 진행되는 3분기에는 그 간의 논의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각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사례 분석은 물론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세미나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최근 연이어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해상공항이라는 입지적 특성까지 고려해 폭 넓은 안전 강화 방안이 필요” 하다고 말하며,
-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이 물류, 여객,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거버넌스 참여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	책임자	팀 장	위은환 (044-201-5202)
		담당자	사무관	한시겸 (044-201-5203)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기욱 (044-200-5910)
		담당자	사무관	추윤식 (044-200-5918)
	부산광역시 공항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병권 (051-888-4570)
		담당자	주무관	강슬기 (051-888-4574)
	울산광역시 광역트램교통과	책임자	과 장	김규판 (052-229-7770)
		담당자	사무관	박미정 (052-229-7771)
	경상남도 물류공항철도과	책임자	과 장	표주엽 (055-211-4650)
		담당자	사무관	김태준 (055-211-4682)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기획조정처	책임자	처 장	박시환 (051-604-3740)
		담당자	팀 장	조순제 (051-604-3761)

참고 1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구성

거버넌스 전체 회의					
구분	공항건설, 운영준비	교통망 구축·연계	항공수요 제고·창출	물류 활성화	배후지역 개발·연계
주관	공단	국토부	공단	해수부	부울경 지자체
지원	건기연	교통연, 공단	교통연	해양수산연구원 공단	국토연, 공단
참여	국토청, 항공청, 해수청, 기상청, C.I.Q 기관, 토목학회 등	기존 접근교통망TF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항공협회, 공항학회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세관/농림축산, 코트라, 부산상의, 부울경 연구원3곳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울경 연구원3곳 등

※ C.I.Q는 공항 3대 출입국관리 분야로 Customs(세관), Immigration(출입국관리), Quarantine(검역)을 의미

참고 2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주요 논의과제 목록

분 과	논의과제(안) ※ 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올해 우선 논의과제	'26년 이후 논의과제
① 공항건설, 운영준비	- 안전한 공항건설 방안 (EMAS, 조류탐지레이더, 비행절차 등) - 이용자 관점의 시설 및 공간계획 등	- 공항 운영기관 설립방안 검토 - 공사 문제점 및 이슈 대응(자재조달 등) - 공항부지 운영전략(토지이용계획 등)
② 교통망 구축·연계	- 접근도로, 접근철도 적기 개통 전략 - 연속류 확보 등 연계교통체계 구축 - 기타 지역 교통인프라 간 연계 방안	- 여객선, 고속페리 등 교통수단 도입 - UAM 등 미래교통수단 도입방안 - 공항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체계 등
③ 항공수요 제고·창출	- 항공사 취항 제반여건 검토 등 - 항공사 유치 및 거점항공사 육성 전략	- 부울경지역 항공수요 정밀분석 - 인-아웃바운드 수요 활성화 방안 등
④ 물류 활성화	- 복합물류 통합 연계체계 마련 - BIZ 모델 구축을 위한 선도사업 발굴	- 복합물류 행정절차 간소화 및 활성화 방안 - 항만-공항 연계인프라(도로, 물류시설) 등 도입 검토
⑤ 배후지역 개발·연계	- 지자체 개발계획 검토 및 계획 연계 - 공항개발예정지역 세부 기준 마련 등	- 아시아 물류거점 배후도시 조성 - 고부가가치 상업시설 유치 전략 등